

# 아리암 그리고 스페디담의 갈등과 변화

글 · 김동준 음악평론가

아리암은 올해로부터 30년 전인 1975년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가 마르셀 란도프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며 그의 목적은 클래식음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현대음악과 청중들의 거리를 좁히자는 것이었다. 또한 스페디담은 1959년에 음악가들 자신의 손에 의해 탄생 되었으며 시작부터 프랑스 정부나 문화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이러한 아리암, 그리고 스페디담의 최근 변화를 위한 갈등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자.



아리암(ARIAM, Association Régionale d'Information & d'Action Musicales)은 많은 일반시민과 음악애호가, 그리고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프로페셔널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아리암의 중요한 프로그램 가운데는 음악원을 졸업한 젊은 음악가들이 프로페셔널 음악가가 되는 과정을 좀더 안정되게 밟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과 현대 작곡가들에게 작품을 위촉하거나 지역 작곡가로서 선정해서 창작에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그러나 아리암의 지원이나 혜택을 입는 음악가들은 초연이나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

## 음악이라는 물을 공급하는 아리암

아리암은 스페디담과는 달리 프랑스 문화부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구이며, 그 역할 역시 시민들에게 음악교육과 참여 및 경험의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도록 하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2005~2006년 시즌 동안 계획되어 있는 아리암의 프로그램을 살펴보게 되면, 아리암 활동의 특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악기를 배우거나, 음악이론을 배우는 것은 음악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좀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수준 높은 프로페셔널 음악가와 함께 연주하고, 배우는 일은 음악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일이다. 프랑스에는 아마추어 합창단이 매우 많은데 파리 오케스트라와 같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의 합창단 가운데 다수는 아마추어이다. 그러나 모차르트나 베를리오즈의 레퀴엠과 같은 레퍼토리를 부를 수 있는 아마추어 성악가들의 수가 적지 않다. 이들 아마추어 성악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합창단의 활성화와 지원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리암의 활동이다.

아리암은 올해로부터 30년 전인 1975년에 프랑스의 대표적인 음악가 가운데 한 명인 마르셀 란도프스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의



아리암의 지원이나 혜택을 입는 음악가들은 초연이나 수많은 연주회를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된다.

왼쪽 페이지

아리암은 많은 일반시민과 음악애호가, 그리고 아마추어 음악가들이 프로페셔널 음악가들과 함께 음악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기구

목적은 클래식음악을 활성화시키는 것과 현대 음악과 청중들의 거리를 좁히자는 것이었고, 그 목적과 방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아리암은 이제는 자리를 잡은 지역 음악원 제도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음악가들을 배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젊은 음악인들이 음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페디담의 역할도 있다.

아리암이라는 기구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아리암은 음악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물을 공급한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관심과 시간만 준비하면 된다.

## 음악가들에 의한, 음악가들을 위한 스페디담

프랑스에서 클래식 라디오 방송을 듣게 되면 연주한다는 의미의 jouer가 아닌 해석한다는 의미의 interpréter가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나 아마추어 연주자들에게 interpréter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은 없다. 연주자들을





일반시민과 음악애호가, 그리고 아마추어 음악가들을 위한 아리암이라는 기구는 물과 물고기의 관계를 생각하게 한다. 물고기가 살 수 있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아리암은 음악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물을 공급한다.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약간의 관심과 시간만 준비하면 된다.

왼쪽/오른쪽 · 스페디담은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단체

interpréte라고 부르는 것도 처음에는 다소 생소하면서, 신선했다. 만일 어떤 연주자가 '스페디담(SPEDIDAM, Société de Perception et de Distribution des Droits des Artistes-Interprètes de la Musique et de la Danse)'에 가입해 있다면, 라디오를 포함한 미디어에 자신의 '해석'이 방송될 때마다 저작권료를 받게 된다. '해석자의 권리'를 표어로 내세우고 있는 스페디담이라는 기구의 제정은 주로 라디오를 포함한 미디어를 통해서 음악이 방송될 때 거두어들이는 저작권료와 연주자들이 연주나 녹음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일부를 세금 형식으로 받는 것이다. 물론 이는 스페디담에 가입한 음악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다. 반드시 여기에 연유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파리에 음악을 틀어놓는 카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만일 하루 종일 음악을 틀어놓는다면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가 만만치 않다.

스페디담은 1959년에 음악가들 자신의 손에 의해 탄생 되었다. 시작부터 프랑스 정부나 문화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초기에 스페디담은 음악가들의 권리를 법률화시키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985년에 음악가들의 권리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 되었다. 이후로 프랑스에서는 음악가들이 자

신들의 음반이 방송될 때마다 방송에 대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스페디담은 결국 음악가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단체라고 말할 수 있다. 스페디담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이 음악가이다. 그리고 스페디담의 대표는 선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바뀌는데, 투표권은 음악가들에게 있으며, 현재의 대표는 베이스 연주자이기도 하다.

1985년에 제정된 법률안으로 악보복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음반을 포함한 음향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게 되었다. 이것을 계기로 스페디담의 수입원은 보다 풍부해졌고, 이러한 음향물에 대한 저작권법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음악인들과 무용인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원의 내용으로는 페스티벌을 포함한 실제 공연에 대한 지원, 창작곡의 연주, 그리고 젊은 음악가들이 계속해서 음악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스페디담의 이러한 모든 재정적인 바탕과 활동은 완전히 독립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필자는 파리와 프랑스 지역의 중요한 페스티벌에서 스페디담의 지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프랑스의 한 지역 페스티벌에서는 페스티벌

마지막 날 연주회 뒤에 스페디담의 직원들이 음악가들에게 조그마한 선물을 주는 풍경을 볼 수도 있었다. 물론 스페디담의 직원들은 단순히 페스티벌이 무사히 끝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원한 금액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고용된 음악가들이 적당한 대우를 받고 연주를 했는지 등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기도 하다. 종종 페스티벌에서는 자체적으로 '스페디담의 밤'을 기획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풍경은 음악가들과 스페디담이라는 기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프랑스의 클래식 음악 연주자들은 연주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생활이 가능하다. 이 점이 프랑스 국적이 없는 외국인 연주자들도 파리에 계속 머무르게 하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다. 한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Intermittents du spectacles, 비정기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앵테르미탕은 연주회나 공연관련 일이 일정치 않은, 그러니까 월급을 받지 못하고 일에 대한 수당만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음악가, 연극인 및 공연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는 조명, 운전기사 등이 1년 동안 정부에서 정한 최소한의 노동일수를 채우면 모자라는 수입을 지원해 주어 최소생계를 보호해주었다. 과거에는 음악원의 교수로 월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로 생활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해졌다. 이 제도의 축소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이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실업자들에게 주는 실업수당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정말로 최소한의 궁핍한 생활을 의미하며, 실업자들에게 일을 알선하는 기구인 ANPE의 제안을 거절하게 되면, 실업수당의 혜택 또한 끝이 나게 된다' 제도와 더불어 스페디담의 존재는 연주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 주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모든 음



악가들이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이나 스페디담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2년 전에 프랑스 문화부에서는 앵테르미탕 뒤 스펙타클의 법안의 수정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많은 예술인들의 시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음악가들의 안정된 수입은 스페디담의 재정과 직결되기 때문에, 스페디담에서는 가능한 많은 음악가들이 적당한 댓가를 받으면서 고용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로 스페디담이 없다면 많은 페스티벌이 내년을 기약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치적으로는 아무리 스페디담의 지원이 크더라도, 한 페스티벌의 전체 규모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페스티벌이나 음악회 기획자의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일이다.

스페디담에서는 지원을 받기 원하는 페스티벌이나 음악가, 무용가, 학생, 음악원 등으로부터 지원서를 분야에 따라 연중 2회에서 4회까지 받는다. 물론 지원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낼 수 있는 기회는 연중 수차례이지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한 번 뿐이다. 한 해에 두 번을 지원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몇 년 정도까지는 매년 한 번씩 스페디담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스페디담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스타 아카데미식의 문화상품화 분위기와 더불어 스페디담은 최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유는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나 음반의 복제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음악과 영상에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스페디담의 상징적인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디담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해 200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가들을 돕기 시작하고 있다.

것은 페스티벌이나 연주자가 어느 정도의 시기를 거쳐서 독립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다. 주로 음악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은 토론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스페디담이 한 해에 지원하는 건 수는 대략 1천여 건이며, 지원을 요구하는 건수의 70~80퍼센트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 한정적인 지원과 그에 따른 어려움

그러나 프랑스에서도 음악가들이 처한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물가의 상승을 포함한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에 맞추어 음악가들의 수입이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과거에 비해서 현대작곡가의 초연이나 실험적인 시도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허리띠를 졸라 매야 하는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로 타격을 받는 분야가 문화라는 것은 이곳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한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작에 대한 의욕도 떨어뜨리고 있다.

내년 2006년 초에는 앙테르미탕 뒤 스펙타들의 대한 개정안이 발표될 예정인데, 스페디담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은 희망적이지 못한 상태이다. 이는 연주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독립 음악가들에게는 더욱 어려운 상태를 의미하

게 된다. 스페디담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예술가들을 돕기 위해서 지난 해 2004년부터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가들을 돕기 시작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집월세, 혹은 전기요금을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예술가들을 돕고 있다. 이는 앙테르미탕 뒤 스펙타클의 변화로 인해 야기된 어려움을 다소 늦게나마 해결해 보려는 스페디담의 의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대목에서 프랑스의 기업들은 순수예술과 예술가들에 대한 후원을 어떻게 하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수많은 예술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결론부터 말하자면 문화예술에 대한 기업의 후원은 매우 한정적이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통계를 갖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업들은 문화예술을 지원하는 일이 프랑스 문화부가 할 일이지, 자신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물론 몇몇 은행이나 기업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젊은 음악가나 단체들의 연주나 녹음활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곳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은 앞서 언급한 것과 같다.

올해는 프랑스에서의 브라질의 해이기도 한데, 브라질의 상파울로를 예로 들면, 순수문

화예술 활동이 거의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는 모습이다. 연주회장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의 운영이나, 연중 연주회 프로그램의 구성, 연주단체의 초대 등도 모두 기업의 후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프랑스에서도 이러한 브라질의 상황에 비추어 기업의 문화예술, 예술가 지원을 촉구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프랑스의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극적인 형편이다. 그러나 스페디담은 기업들이 스페디담의 활동을 지원하거나 참여하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하다. 지원을 원하는 서류를 검토하는 회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스페디담이 변색될지 자명하기 때문이다.

전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곳 프랑스의 TV 프로그램인 '스타 아카데미'는 지금의 문화가 처해있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던 젊은이들이 가수가, 아니 스타가 되어보겠다고 도전하는 모습이 계속 TV를 통해 방영되고, 수많은 시청자들이 이들을 관심 있게 본다. 한명씩 탈락하고, 최후의 스타가 남는 방식인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제적인 득을 보는 이는 결국 방송국과 음반사이다. 스타 아카데미가 실제로 가수에 대한 프랑스 사람들의 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최후에 남은 가수에 대한 인기와 음반 판매도 만큼은 매우 높다. 그러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대목은 그들의 인기와 성공이 아니라, 가수가 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프로그램이다.

TV라는 매체 고유의 아우라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승을 포함한 고유의 대중음악역사를 지니고 있는 프랑스에서도 돌아가는 형세는 이렇다.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지만 메이저 음반사들은 어떤 가수의 첫 번째 음반이 잘 팔리지 않으면, 계약은 그것으로 끝이다. 몇 년의 계약

기간을 두고 원하는 음악을 녹음할 수 있었던 때가 있었다는 얘기는 마치 꿈나라 얘기처럼 되어 버렸다. 스타 아카데미식의 문화상품화 분위기와 더불어 스페디담은 최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유는 인터넷을 통해 음악을 다운로드받거나, 음반의 복제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서 'Peer-to-peer' 라고 부르는 이 인터넷상의 음악파일 불법교환 성행은 스페디담의 재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으며, 그동안 음악과 영상에 관련된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스페디담의 상징적인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페디담은 음악파일을 인터넷상에 올리거나 다운받는 것을 법적으로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갈 길이 그리 순탄치 않다. 음악과 일을 다운로하는 받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는데에는 도달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음악과 일을 인터넷상에 올리는 행위를 법적으로 막는 것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만일 이것이 법률화가 되고, 인터넷상에서의 음반들에 저작권을 보호하는데 성공한다면 스페디담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며, 음악가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스페디담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그러나 프랑스 문화부는 스페디담의 요구에 결코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많은 음악가들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법안 채택을 요구하는 카드보내기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하지만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글을 마치면서 뱅상 반 고흐와 동생 테오의 관계를 떠올려 본다. 테오는 형 반 고흐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지탱해 주었다. 반 고흐는 이 10년 남짓한 시간 동안 800여 점의 데생과 800여 점의 회화작품을 남겼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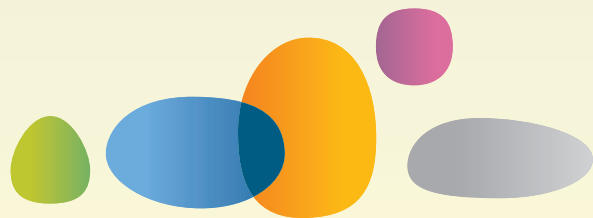
※ 이 글은 스페디담의 커뮤니케이션 담당인 장-피에르 쥐세와의 인터뷰, 프랑스에서 발행되는 클래식 음악인들을 위한 잡지 '음악가의 편지 Lettre du musicien' 가운데 스페디담과 아리암에 관련된 기사들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훌륭한 예술이 우리 모두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들로 구성된 11명의 위원들이 합의를 통해 우리의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민간 자율 기구입니다. 즉 민간이 공공영역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공공영역이 민간에 참여하는 동시적 구조를 가짐으로써 급속히 변화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의 자생력을 신장시키고, 예술 창조를 건인하며, 예술의 융성을 통해 예술시장의 생산력을 확보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예술이 주는 창조적 기쁨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새 얼굴(C)

<http://www.arko.or.kr>